

오늘의 유머

■아내가 예뻐 보일 때

한 무뚝뚝한 남자가 대수술을 받은 뒤 마취에서 깨어났다. 눈을 떠보니 곁에 아내가 앉아 있었다.

남자는 힘겨운 목소리로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라고 말한 뒤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남편의 말에 기분이 좋아진 아내는 계속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눈을 뜬 남자가 말했다. “당신 귀엽군.”

이 말에 아내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름답다고 했던 말은 뒤에요?”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다. “미안해 잠깐 약 기운이 떨어지고 있어.”

■눈치 없는 남자

한 남자가 두 눈이 시퍼렇게 멎은 채 회사에 출근했다. 그것을 본 상사가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부부싸움이라도 했어?”

그러자 남자가 볼멘 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말이죠. 어제 교회에 갔는데 앞쪽에 풍뎡한 여자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려고 막 일어나는데 그녀의 엉덩이 사이에 웃이 끼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꺼내 줬더니 그 여자가 제 눈에 주먹을 날렸어요.”

“그럼 다른 쪽 눈은 왜 멎이 들어?”

남자가 억울하다는 듯 대답했다. “난 여자가 그 행동을 원치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웃을 집어넣어 줬거든요.”

■누구 탓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환자를 나무라고 있었다.

“당신이 병이 난 것은 바로 술과 담배 때문입니다.”

그 말에 환자가 환한 표정을 짓자 의사가 다그

쳤다. “아니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뭐가 그리 좋습니까?”

“마침내 그게 ‘내 탓’이 아니라고 말하는 의사를 만났군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어느 날 남자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 남편을 맞이했다.

“어보 고생 많았지. 저기 나쁜 소식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어요.”

긴장한 남편이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음, 그러면 좋은 소식부터 먼저 들려줘.”

그러자 아내가 한껏 들뜬 표정으로 대답했다. “우리 자동차의 에어백이 제대로 퍼지더라고요.”

■학교 식당에서

학생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들어갔는데 큰 그릇 위에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잔뜩 놓여 있었다.

그리고 사과 앞에는 이런 말이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다.

“사과를 하나씩만 집어가지요. 하늘님이 지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음식이 놓여 있는 줄 반대편 끝에는 빵이 담긴 커다란 그릇이 있었다. 한 학생이 빵을 잔뜩 집어간 뒤 쪽지를 남기고 갔다.

“빵은 마음대로 집어가지요. 하늘님은 사과를 감시하느라 저쪽에 계시니까요.”

■특별한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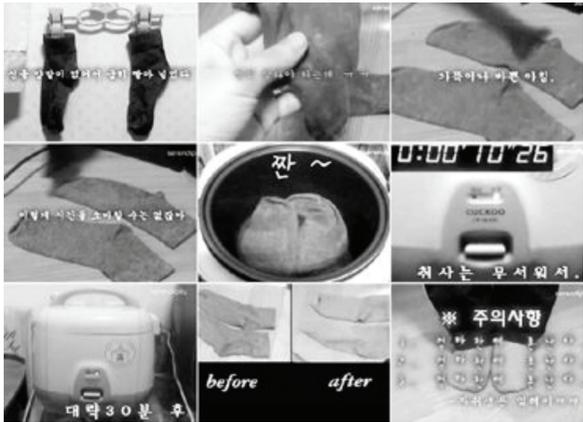
식당 지배인이 웨이트리스들을 한데 모아 놓고 신 업무 지시를 내렸다.

“오늘은 다들 최고로 맵시를 내도록 하세요. 화장도 좀 진하게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말이야. 잠 최대한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대하도록!”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한 직원이 물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라도 오시는 건가요?”

그러자 지배인이 대답했다. “오늘은 질긴 고기가 도착했어요.”

시끌벅적 e-스타



밥통으로 양말 말려 봤어요?

이리저리 꽃 단장하며 아침 출근 준비를 다 끝냈는데 신고 나갈 양말이 없다면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해봤을 양말 말리기 대소동.

신을 양말이 없어 급히 빨래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건조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흔히 동원되는 도구는 머리 말리는 데 쓰는 드라이어나 옷을 다리는 다리미. 하지만 양말 건조를 위해 기상천외한 가전 제품이 도입됐다. 바로 밥통이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밥통으로 양말 말려 봤어요’ 라는 동영상이 등장해 네티즌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가득이나 바쁜 아침,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드라이기를 이리저리 흔들며 양말 말리는 데 귀중한 시간을 소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뜨끈뜨끈 밥통이다. 물론 밥이 들지 않은 빈 밥통이어야 한다.

급한 대로 물기 축축한 양말을 밥통에 넣고 보온 버튼을 누르고 세수하고, 옷 쟁쟁입으며 부산히 출근 준비에 몰입한다. 아무리 바빠도 양말이 고루 마를 수 있도록 중간에 한 번 양말을 뒤집어주는 센스도 필요하다.

그렇게 30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아침 출근 준비가 끝났다면 밥통 뚜껑을 열어보자. 몰라보게 뽀송뽀송해진 양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긴박했던 아침 출근 비상사태는 해결이 된다.

출근은 무사히 완료했을까라도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다. 첫째도 염마, 둘째도 염마, 셋째도 염마. 염마한테 혼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자취생에게는 염마 눈치 안 보고 시도해 볼 만한 도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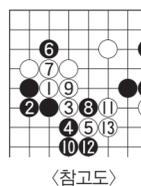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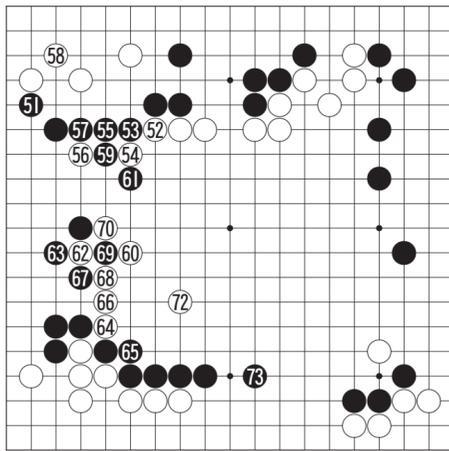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실속없는 기본내기

일반부 결승 4보(51~73)

白 송홍석 7단 黑 이상헌 6단 (경기) (서울)



참고도

흑 51로 붙여 간 수는 당연한 선수로 보였는데 송홍석은 골북이라고 생각했는지 백 52로 밀어 반발한다. 이것은 백이 그냥 58로

귀를 지켰을 때 흑이 54에 두는 것이 명당자리가 된다고 본 것이다.

백 52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두고 3으로 짓히는 것도 많이 쓰이는 수법이다. 그러면 백 13까지가 예상되는데 이것도 전혀 불만이 없는 그림이다.

백 54로 짓고 56으로 들여다 바 기본을 냈으나 결국 58로 지킬 수밖에 없고 흑 59로

떨러 백이 반발한데 의의가 있을 뿐으로 백이 실속없이 기본만 낸 결과가 되었다.

송홍석도 마음에 안한다는 뜻이 고개를 가우뚱 하며 백 60으로 흑 세력 삭감에 나선다. 이 수로는 61에 느는 것이 정수. 그러나

이렇게 뒤야 된다는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이상헌은 바를 짓이 없다는 듯 기분 좋게 흑 61로 단수하고 73까지 느긋하다. 서로의 생각이 보이는 절충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대한주변봉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5일(음 11월 28일 己亥)

36년생 구름이 따르고 신체의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48년생 남의 말은 경청하되 결정은 혼자 하라. 60년생 도전의 기회가 보인다. 72년생 기회가 오니 적극적인 참여로 기회를 잃지 마라. 84년생 처지의 건강을 살펴보자. 행운의 숫자: 02, 41

37년생 바뀐던 일손을 놓고 가족을 돌아보라. 49년생 새로운 인연은 있으나 큰 기대는 거두어라. 61년생 새로운 직업과 인연이 생기니 조심은 잃지 마라. 73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명예는 지키리라. 85년생 역풍에 대비하라. 행운의 숫자: 06, 28

38년생 의외로 재물이 생기고 승진하는 격이나 이상문제는 조심하라. 50년생 일 거수 일 투족을 조심하고 마음도 조심하라. 62년생 일고는 있으나 봄은 멀지 않다. 74년생 입을 조심하라. 신음이 무너질까 걱정된다. 행운의 숫자: 10, 42

39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라. 51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나 내 것이 아니니 적당하게 취하라. 63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물을 조심하라. 75년생 정신이 흔들리니 심상의 안정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13, 41

40년생 주변의 이상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52년생 주변이 산만하고 어지럽지만 정리만 잘하면 오히려 복이 든다. 64년생 지인의 협조가 있다. 76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애사가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18, 32

41년생 처음 가는 길이나 살피서 행동하면 만사가 길사다. 53년생 특별히 건강에 유념해야 뒤달이 없으리라. 65년생 풍파를 만나니 마음을 단단히 하라. 77년생 혼자 하는 게임이니 재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23, 43

42년생 금전 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 직업 변경도 우려된다. 54년생 기억이 쇠하니 심장을 살펴보자. 66년생 남편과의 불만과 불평이 나타나 본인의 잘못이다. 78년생 또 다른 이성을 만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1, 34

43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결과는 미미하다. 55년생 많은 고역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67년생 부부간의 언쟁을 현명하게 넘겨라. 79년생 부부의 예정이 소폭소폭 살아난다. 행운의 숫자: 12, 30

44년생 불연이면 진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니 이해하며 지내라. 56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신중히 결정하라. 68년생 생활의 무료함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변화할 기회를. 80년생 서류도 불만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15, 33

45년생 순류에 관해하는 격이다. 57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내고 예사가 발생할 수니 주변을 살펴보자. 69년생 양중모색을 하느니 잘한다. 81년생 어부지리는 있으나 조그맣다. 행운의 숫자: 20, 39

46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나니 생각하며 행하라. 58년생 재물과 처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 70년생 절대 손윗사람과 신사나 동업은 하지하라. 82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22, 16

47년생 올바른 행실을 해야 할 것이다. 59년생 큰 성공의 기쁨이 마련되니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하고 있거라. 71년생 하는 일마다 불행한 인연이 따를 수 있다. 83년생 학문의 발전이 있다. 행운의 숫자: 24, 27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treatment,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Table with 4 columns: English (Do you want to come by?), Japanese (どこがわるいんですか?), Chinese (三老师不在), and Korean (飢不啄粟). Each column contains a question, a dialogue, and a translation.